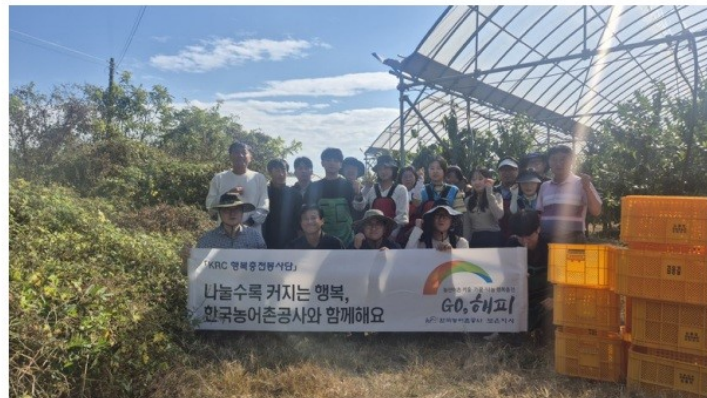


농어촌공사 보은지사, "대추 수확 함께해요"...농가 일손돕기

[이진경]

대추축제 앞두고 성족리 농가 찾아 수확 지원...직원 20명 참여



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.

지난 12일 보은군 성족리의 한 대추 재배농가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직원들이 대추 수확 일손돕기 활동을 펼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[충북일보] 보은대추축제를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직원들이 대추 수확에 힘을 보탰다.

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(지사장 박재우)는 지난 12일 보은군 성족리의 한 대추 재배농가를 찾아 영농도우미 활동을 펼쳤다.

이날 직원 20명은 대추나무에서 열매를 직접 따고 수확한 대추를 상자에 담으며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.

특히 수확 다음 날 비가 내리면서 농가는 비가 오기 전 대추 수확을 마칠 수 있었다.

이번 활동은 지역 대표 농산물인 대추의 수확철을 맞아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.

박재우 지사장은 "대추축제를 앞두고 농가의 수확을 도울 수 있어 뜻깊다"며 "앞으로도 지역 농업 현장에 관심을 갖고 농가와 함께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"고 말했다.

보은 / 이진경기자